

### 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220면 (가해)  
 제 1 독서 : 이사7, 10-14  
 제 2 독서 : 로마1, 1-7  
 복 음 : 마태1, 18-24

# 순정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이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태오1, 21)



# 하늘에 영광 땅에 영광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李海仁 수녀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 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 감옥 속에서 만난 하느님

-한 수인(囚人)의 참회기-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죄의 유혹도 없을 것 같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머슴을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불행의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80년도 광주 사태가 한창 진행되어 질 즈음에 사람들은 나의 신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굶기야는 고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전주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몸부림의 세월이었고 적개심과 복수의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자살까지도 시도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런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러나

때까지 글을 읽을 줄도 더구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완전한 문맹이었습니다만 성경을 읽기 위하여 어린이 처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도 열심히 배웠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나는 감격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거지였던 나자로로 정했습니다.

## 자유의 몸으로 처음 맞는 성탄!

아이며 전과자이고 전라도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주인은 6개월간의 노임도 주지 않은채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강하게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넘겨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나는 또 한번 세상의 부조리와 냉혹함에 치를 떨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 잡혔습니다. 나의 분노는 주인에게 폭발되었습니다. 끝내 나는 국보위의 사술에 묶이게 되었고 계엄군사 재판에서 또 하나의 폭도가 되어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한번의 정당한 재판도 없이 나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또 다시 갇힌 몸(囚人)이 되었습니다. 한과 분노, 원망과 미움의 세월이

놀라운 은총이 나를 찾아주었습니다. 주님은 내 절망의 끝자리에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몸부림치던 어느날 무엇에 이끌린듯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참혹한 모습을 보았고 나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탕자인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희망을 가졌고 힘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느님은 나를 찾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교도소에 들어갈

나를 모두를 용서했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것을 들추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의 역사를 나의 과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9년 가까운 형기를 마치고 89. 8. 14 일자로 출소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베소라 성서」에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처음 맞는 성탄절- 나는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마굿간 같은 누추한 내 마음 안에 비단을 깔고 축하를 드릴 것입니다. 하느님 만세!

양동술/나자로

# 요심이 (855) 김병오

천사입니까? 왜국회 증언을 안할려고 합니까?

10년전에 큰감투를 싸보같이 빼앗겨서 험퍼해서 그렇소

천사입니까? 왜 생중계 증언을 할려고 합니까?

우리 친구들이 밀은 함께 하고서 나 혼자만 책임지라고 하니 분해서

원고를 기다립니다  
나침판 등에 실릴 원고: 3~4매 내외  
체험담: 5매 내외  
기 타: 3~4매 내외  
보내실 곳: 520-090 전주서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성탄구유의 유래

## 첫번째 말구유 장면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에 의해 정립

모든 크리스마스 전통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탄생 장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세주 탄생을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생활과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에서 1223년의 성탄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고픈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레치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의 모습을 진짜살아 있는 동물을 등장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 역할을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말구유 꾸미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예수 오심을 기리기 위해 어떤 가정에서는 대림절 동안 말구유를 꾸며 가려놓고 있다가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가리개를 벗기고 축하인사를 드린다.

첫번째 말구유 장면은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아기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의 완전한 모델을 발견했다. 그는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이탈리아 리에띠 계곡의 그레치오

### 교구소식

- 축! 성탄: 교구민 모든신자분들께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 평신도 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일시-1990년 1월 6일(토) 오후2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회의실 참석대상-각본당 사목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 중·고 전례부원 연수: 일시-①남전주, 이리, 익산, 삼례, 무진장지구-1990. 1. 7(일) 오전9:00 ②북전주, 군산, 김제, 임순남, 정읍지구-1990. 1. 14(일) 오전9:00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본당 전례부원(해설자, 복사단) 참가비-공문참조
- 어린이 복사단 교육: 일시-①남전주, 김제, 삼례지구-1990. 1. 8(월) 오전9:30 ②북전주, 정읍, 이리지구-1990. 1. 9(화) 오전9:30 ③군옥, 익산, 임순남, 무진장지구-1990. 1. 10(수) 오전9:30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초등부 복사단 참가비-1인당 2,000원
- 전주 제4차 선택: 일시-1990. 2. 9~11 장소-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접수-교구청 교육국
- 평신도 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일시-1990년 1월6일(토)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대상-각본당, 사목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 축! 영명: 12월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신부님 12월27일(성요한 사도 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중복, 이덕근, 김선태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황수경 산부인과

여 의 사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익은행 건너편 골목  
TEL. 84-7272



### 부인주단

●주단  
●침구  
●혼수전문  
김 한중(요한)  
황 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84-7294

### 성심木공업사

설구-제대-강릉대-제구장-김의자  
탁상-회분대-훈례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안나(은순)  
전주 ☎ 77-1747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 기 정 (요셉)  
효자성당 앞  
☎ 82-6492  
패션핸드백의 명품  
美米星 미성핸드백  
김혜겸(글라라)  
하명희(미카엘)  
전주 코아백화점 1층  
☎ 80-1140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조화서베드로)  
안화동(프리스가)  
전주오거리(신)서강정형외과 앞  
(구)나정형외과  
☎ 74-1123.3-6709

일분명상

죄를 언제까지나 참회하고 있어서 안된다. 우울증에 빠져 하느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두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서 기쁨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라.

-탈무드-

명동피부과의원

# “주여 이서 오십시오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 내가 맞는 성탄 -

## 자신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연일 축제분위기로 가득찬 관통로의 어느 커피숍에 탄생하실까 아니면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용한 오두막집에 탄생하실까, 혹은 화려하게 꾸민 성당의 구유에서 탄생하실까, 아니면 문규현 신부님이 감계하신 서울구치소의 많은 양심수인들 속에서 탄생하실까... 초라한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셨기에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느 곳이든 모두에게 탄생하셨으면 좋겠다. 하여 잘못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고쳐 바로 세워주시고, 의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격려하시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이었던 한다. 성탄을 맞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과연 탄생했는지 반성해 본다.

전동보좌/김 선태신부

## 작은 예물

며칠전 모습이 초라한 아주머니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 오셨다. 순간 나는 어떤 도움을 청하실까? 생각하며 의자에 앉으시길 권하였더니,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혹 필요하실런지...” 하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수줍게 내려 놓으시더니 총총히 나가시는 것이었다. 풀어보니 새 옷은 아니지만 양질히 손질된 아동복과 고추가루가 한 봉지 나왔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렇듯 우리 사무실에는 나 자신을 깊이 반성케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는 작은 예물들이 일상을 통하여 배달된다. 특히 후원회 미사가 끝날 때 아다모아지는 정성들; 줌들이 쌀 두세가마, 거기에 때론 메주 한 양, 세탁비누, 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도.....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아지는 이 정성들이 올해엔 작은 자매의 집(정박

아), 무지개 가족(지체 장애자)의 새 보급자리를 마련하였고, 미육이로 하여금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였다. 동시에 과연 이런 마음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깊이 반성해 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작은 예물들을 나의 부족함과 더불어 바치고자 한다.

“주님, 비록 한 순간이나마 한해를 돌아보고, 당신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가난한 예물이 당신 구속사업의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김영자(말다)

## 노동자의 모습 예수

세상은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면 다들 분주해진다. 성탄, 망년회, 사은회 등..... 잔업이다 특근이다 하며 시간에 쫓기다 주일미사도 제대로 못지키고 성탄 대미사나 참여하는 정도의 나.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그동안 일에서 지쳐 짜증스럽던 내게 새삼 우리 노동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어제를 뒤돌아 보면 용기가 없어 동료가 아파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못본척하며 지낸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노동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 속에 태어나신 그분을 묵상하며 구유 앞에 머리 숙여 본다.

노동자/박복동

## 할머니를 위한 성탄

대림절의 한주 한주가 지날 때면 저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해마다 이때쯤이면 느끼는 성탄절은 이렇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 불쌍한 이웃, 즉 고아들이나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는 몇년 전부터 아파서 누워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아프셔서 어떤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이렇듯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뵈오면 저는 웬지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이 기쁜 성탄절을 할머니를 위해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그 어느 성탄절 보다 더욱 더 뜻깊고 알찬 예수님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 저의 조그마한 정성이 할머니께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저의 작은 정성이 아주 큰 힘이 되어서 할머니의 병이 나으시어 저와 손을 맞잡고 성탄절야 미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평화성당(중2)/임지현

## 그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 용서를 비는 성탄

우리 어은동 마을은 대원군 시대에 하늘을 밟겠다고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침철산중 오지마을 하늘만 뻗히 바라보이는 곳에 모여온 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가난하던 마을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의 열혈에는 하늘을 믿어서인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고달프고 제일 낮은 곳에 살고 있지만 후세의 끝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가난한 산골 농민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왜 하늘의 아들로써 그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없는 편에서 병든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진리의 말씀만 들려 주셨는지 묵상해 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세상의 인간

들..... 지금 생각하면 제 믿음도 헛된 것이었고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제 자신과 이웃의 죄를 빌고 싶습니다.

어은공소회장/강길량

## 마음속의 고통과 기쁨의 주인공

매년 이맘때면 들려오는 거리의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맑은 거리의 캐롤송.....

모든 것이 그렇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나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지내게 되는 크리스마스. 말로 표현키 어려운 마음속의 고통을 당하며 성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 슬프기만 하다. 그러나 기쁘다. 또 행복감마저 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완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

3개월 정도의 이곳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부모님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내리시길 간절히 바란다.

소년원/이베드로

## 산타할아버지 돼지 한마리씩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 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먼 거리에 사는 아이들까지 저녁마다 공소에 모여 난로불에 고사리 손들을 쬐어가며 노래연습과 성경을 연습하며 어른들까지도 카세트들 사다가 연극과 노래 연습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다.

그래서 더욱 이런 간절한 기도도 해 본다. “예수님,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자루에다가 돼지 한마리씩만 넣어서 집집마다 좀 보내주세요. 돼지값 폭락으로 우리공소 신자들이 빚지고 한숨 짓는 모습을 보기가 가슴이 저려요.”

본당이 멀리 떨어진 나환자촌 공소이기 때문에 성탄날도 미사 없이 우리들만이 지내는 성탄잔치가 어쩐지 마음에 쓸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곳을 찾아 탄생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니 가난한자 복되도다.

<신암공소 수녀>

## 숲 정 이 산책



이전 개원  
**김안과의원**  
전주시 서문동 636-5 (중앙성당 옆 투시타워 꼭대기)  
내원시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4:00  
주산균이 살아있는 고급우유

**파스퇴르우유**  
박성자 (루시아)  
파스퇴르우유  
김제부안대리점  
TEL: (0653) 45-0794

이태리 천연대리석 성물판매  
**성마리아성물센터**  
채수현 (시몬)  
가톨릭센터 1층  
☎ 87-6708

**방학강좌 안내**  
고교예비반: 고1(영·수·국) 기초다지기 (1월 3일)

**겨울방학단과 강좌**  
중·고 영수 단과 (1월 3일)

전문대 입시반: 1월 15일  
대입기초종합반: 1월 5일

원장: 이영근 (시몬)  
**대입 전문 한샘학원**  
전주 시청앞 ☎ 74-7424

수시상담·능력지도 초·중·고 일반부 주부 -회화반  
**베스트영어학원**  
원장: 송수중 김청숙 (스텔라)  
서서학동 사무소 앞 TEL: 87-5631

해외성지순례안내  
국내신혼여행안내  
**전 일 관광**  
조선 (안토니오)  
☎ 6-6666~8

신장개업  
**헤레나미용타운**  
김예순 (벨베라)  
TEL: 85-3483 (효자국교 옆 사거리)

90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제일예식장 뒤  
TEL: 3-3284, 72-4417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앞  
TEL: 4-3948, 76-0034

**효자웅변종합학원**  
삼천쌍용 아파트앞  
TEL: 83-8331 ~ 2  
원장: 유병철 (베드로)  
원감: 박경애 (안젤라)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드레스마중·대어  
최윤경 (유리애)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TEL: 3-2496, 2-8653

**생그린순(筍) 화장품**  
전주지사 (시청앞)  
주부사원모집  
TEL: 86-2714  
강가브리엘 (성윤)

천주교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삼희관광(주)**  
해외여행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이정화 (안젤라)  
(전신전화국원)  
TEL: 87-5532

